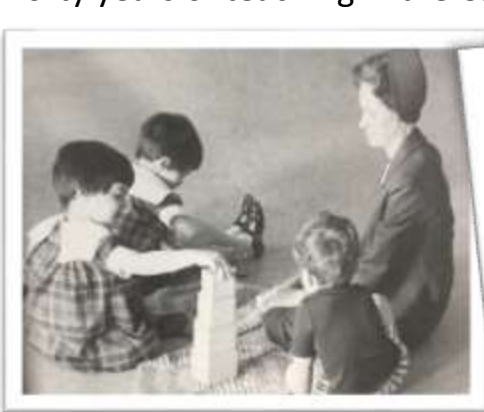




A friendly hello from Greensburg, Pennsylvania. I am Sister Anita Louis Schulte. Originally, I am from Brooklyn, New York where I lived with my parents and my older brother, Bob. My greatest decision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was to enroll in Seton Hill College as an education major. After graduation,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which was more than 60 years ago. Time just flew. Now Greensburg has become my favorite home.



Before entering the Sisters of Charity, I taught in the public schools in Brooklyn with primary grade students. That was great preparation for forty years of teaching in the Catholic schools staffed by the Sisters of Charity in the Greensburg Diocese. Teaching in the primary grades in Brooklyn prepared me well for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As a junior professed sister, I was asked to study the philosophy of Maria Montessori which gave me the privilege of



teaching young children in the Catholic Schools. One of my greatest delights was to be founder of the Elizabeth Seton Montessori School in Greensburg where I educated three to five-year-old children for forty years.



Since my retirement from teaching, I have enjoyed time praying and knitting hats for poor children, and being involved in community life at Caritas Christi along with our Korean Sisters who enrich our lives.





안녕하세요! 애니타 루이스 숄티 Anita Louis Schulte 수녀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그린스버그에서 수녀님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Brooklyn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오빠 밥 Bob과 함께 거기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린 가장 큰 결정은 교육학을 전공하기 위해 씨튼힐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었습니다. 씨튼힐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벌써 60여년 전 일이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린스버그는

‘즐거운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입회하기 전에는 브루클린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제가 교육 사도직을 선택할 수 있었고, 우리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린스버그교구 가톨릭 학교에서 40년간 가르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유기서원기에 공부한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 철학으로 가톨릭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제가 그린스버그에 엘리사벳 씨튼 몬테소리 학교 Elizabeth Seton Montessori School를 설립한 일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고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을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교육 사도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기도하며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모자를 뜨개질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한국 수녀님들과 함께 카리타스 크리스티의 공동체 생활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